

힐러리, 선거인단 과반 확보...오하이오·플로리다라는 '혼전'

경합주 15곳 중 9곳 앞서

공화당 텃밭 조지아도 우세

트럼프, 3차 토론서 승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경합주 15개 주 가운데 9개에서 우세를 보이며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현지시간) 나왔다. 대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 승리에 필요한 '매직넘버'인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훌쩍 넘긴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서베이몽키가 지난 8~16일 15개 주 유권자 1만73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은 9개 주에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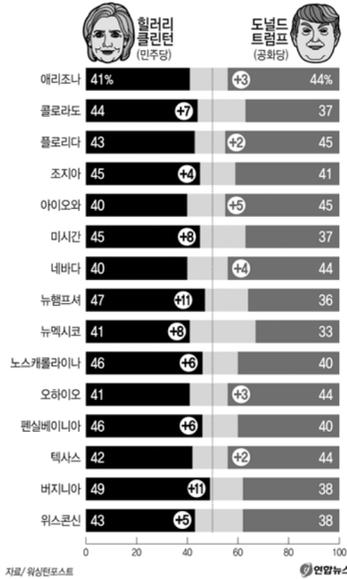
뉴햄프셔와 버지니아, 조지아, 미시간, 뉴멕시코,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이다. 특히 뉴햄프셔와 버지니아에서는 각각 47%대 36%, 49%대 38%로 11%포인트의 큰 차이로 앞섰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주로 분류되는 조지아에서도 클린턴이 45%대 41%로 우세했다.

WP는 경합주 가운데 9개 주에서 앞선 클린턴이 3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트럼프는 네바다와 아이오와 2곳에서만 각각 44%대 40%, 45%대 40%로

힐러리 vs 트럼프 주요 경합주 지지율
10월 8~16일 워싱턴포스트(WP)-서베이몽키, 15개 주 유권자 1만7379명
상대 여론조사 결과, 캐리 존슨(자유당), 질 스타인(녹색당) 후보 등 4차 대결



앞서 선거인단 138명을 확보한데 그치지 않고 나타났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오하이오는 트럼프가 다소 우위지만 '혼전'으로 분류됐다. 이 4개주의 선거인단은 총 96명이다.

WP는 "이 결과는 19일의 마지막 3차 TV토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한다"며 "지난달 말 시작된 TV토론 이후 전국 여론조사는 클린턴 쪽으로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열린 미국 대선후보 2차 토론에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서로 등을 돌린 채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 "여론조사·언론 더는 믿지 않겠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18일(현지시간) "더 이상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콜로라도 주(州) 콜로라도 스프링스 유세에서 자신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설령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나는 더 이상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면서 "만약 10개의 여론조사가 있고 그중 1~2개가 나한테 나쁜 것이면 그들은(언론)은 그 나쁜

결과만 부각해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우리는 잘하고 있다"면서 "계속 기죽지 말고 힘있게 나가면, 또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면 이긴다"고 자신했다.

트럼프는 또 "이번 대선은 또 다른 '브렉시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났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클린턴 우위 구도의 여론조사 흐름과 달리 자신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논리다.

트럼프는 언론을 향해 "그들은 지금 매우 걱정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나한테) 악의적이고 적대적이며, 더럽게 나오는 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이번 선거는 사기꾼 힐러리를 미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언론에 의해 완전히 조작됐다"며 '선거조작 프레임'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클린턴에게 10%포인트 안팎까지 밀리고 있다.



오바마의 마지막 국민만찬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임중 마지막 국민만찬이 시작되기 전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아내 미셸 여사(왼쪽 두번째)가 초청 손님인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오른쪽 두번째)와 아내 아그네스 란디니 여사와 함께 공식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조셉 윤

성김은 필리핀 미국 대사로

한국계인 조셉 윤(62·사진) 전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신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선임돼 17일(현지시간)부터 업무를 공식 시작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조셉 윤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새로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로 워싱턴 DC에 복귀했다.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특별대표의 후임이다.

한편, 성김 전 특별대표는 지난달 말 상원 인준 절차가 끝나 조만간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가공육 질산염 보존제 편두통 원인일 수 있어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드 마이클로비움 센터(Center for Microbiome)의 안토니오 곤살레스 박사는 가공육에 보존제로 들어가는 질산염(nitrate)이 편두통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과 사이언스 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토 500평, 건 904평
(연구실, 본사건물, 경영컨설팅 사무실 최적합)
최고급 시설 / 주차 완비(60대)
※ 분할 등기 가능 ※

- ▶ 감정가 55억
- ▶ 매 가 38억
- ▶ 대출 27억 가능
- ※ 보증금 6억 월수익 3,000만 ※
- ▶ 실투자 5억

1층(상가) 120평(식당 입점준비)
2층~7층(룸 56개) 오피스텔 및 사무실
8층(41평) 고급룸 2개 스카이라운지 전망최고

010-7384-7800 010-6670-9800

사무실 임대 북구 우산동 1층

구호전 / 안보회관 사거리
1층 - 45평
시설 완비 / 즉시입주 / 위치 최고
▶ 보 1천 월 60만

첨단 사무실 임대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임대 6층 - 45평 천별로 전망 좋음 사무실 최적합 / 주차완비 ▶ 보 2천 월 60만
---	--

010-7384-7800

평택 토지 전문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2만평) (현덕지구 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미군기지 - 5만평) (평택항) (현덕지구 70만평)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도 후회 없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전원주택지 분양

송탄역, 진위역 5분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조건

※ (총 7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 개발시 순수익 10억
▶ 전체 매가 16억

※ 토지 2억 ~ 30억까지 다량 확보 ※

경기도 화성시 A.P.T 투자 가장저렴하게 드립니다
※ 실투자 1천만원
A.P.T 34평 ▶ 매가 2억 4천만원
(용 2억 보3천 월 70만)

062-511-7800 010-6832-9700